

촌에 사는 이야기

이 화 자(목사, 전북 완주 금당교회)

어느 학교에서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 땅을 가는 농사일의 소중함도 모른 채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내가 농촌에 산지도 10년.

도무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용계천 냇가를 따라 들어오니 산골짜기의 작은 예배당 금당교회가 있었다. 그 동안 우리 집 살림하듯이 사택과 어린이집 짓고 예배당 수리하다 보니 훌쩍 6년이 지났다.

남정네들과 똑같이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들에 나가 땀 흘리고 집에 오면 잠들 때까지 부모님과 아이들 치닥거리에 집안일, 부엌일로 쉬지 못하는 농촌여성들. 여교역자도 일에 치어사는 농촌 아낙네와 같다. 누구는 헌신적인 동역자 사모님이 계셔서 목회에만 전념(?)하시는데 청소며 반찬걱정 설거지에 어떤 이는 출산, 육아, 시부모님 수발까지 내집 살림 챙기느라 동동거리는 시간들이 만만치 않아 고달픈 그대 이름 여자여! 소리쳐 본다.

하나님의 일에 도시나 농촌이 뭐 다를까? 하는 무관심과 무지에서 나온 용기로 시작한 농촌목회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그저

많이, 좋은 것들을 찾아 헤메다가 끝날 뻔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계획이시며 사랑의 현장이었다.

고집스럽고 답답한 현실과 사람들을 보면서 작고 무기력함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농사만이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소망을 주셨고 농촌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 농촌목회이며 그들의 인내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한다.

예배, 심방, 말씀을 가르치는 일 중심의 목회에서 일만 만드는 나를 두고 문 할머니는 “여자가 와서 그래도 재수가 좋아서 남자들도 겁내는 집도 짓고 교인도 늘고 하였다”고 격려해 주신다.

식구의 대부분인 할머니들이 부르시면 달려가 왜 방이 안 따뜻한지 보일러실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찢어진 바지며 치마 허리도 수선해야 하며 전화요금 내는 일로, 안과에 가는 일로 기사가 되기도 하지만 여자 목사님이라 편하다는 칭찬인지 뭘지 모른 평가도 감사함으로 받는다.

“집사님, 제초제 뿌리면 땅이 큰 병이 들고 결국 우리도 독을 먹게 돼요.” “할머니, 비료 자꾸 뿌리면 상추를 먹는 게 아니라 비료를 먹는 거예요.” 하고 말하면 농사도 모르는 이가 웬 참견? 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제초제를 칠 수 없어서 취나물 밭에 옆드려 일일이 풀을 뽑는 교인들의 구부러진 허리라도 두드려 주고 싶은 안타까움 뿐인 것을.

나라가 일본에 진 빛을 우리가 갚자는 국채보상운동할 때 7만 명의 교인이 2000만 민족을 움직였다면, 그 믿음의 힘으로 작고 힘없는 무리지만 농촌교회가 죽임의 문화 속에서 땅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존재의 의미를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거대한 바위 앞에 계란을 들고 서 있는 꼴인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금당교회가 옛날 대가족이 모여 살던 그때처럼 젊은이가 중심이 되어 정말 한 식구처럼 농사일을 꾸려가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성경말씀 줄줄 못 읽어도, 기도가 좀 서투르고 모자라도, 애

쓴 것보다 손에 돌아오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직하게 먹을거리를 나누는 가난하지만 좋은 농사꾼이면 좋겠다. 우리 자식 중 하나만이라도 땅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살기를 바라면서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힘든 줄을 모르는 바보들이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많이 갖고 많이 쓰고 살던 잘난 사람들이 돈 보따리 들고 찾아와 좋은 먹을거리 좀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날도 있으리라는 꿈을 꾸면서 말이다.

어려서부터 선생님 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가르치고 말만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촌에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된 하나님의 동역자, 농사꾼으로 살고 싶은 새로운 소원을 주셨다. 은혜주시는 대로 삶이 학교가 되고, 흠에서 주신 것 나누는 손이 되고, 그렇게 사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곳에 가는 발이 되리라. 초록이 더하여 가는 나뭇잎의 풍성함처럼 촌사람 모두가 함께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기를 바란다.